

등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核擴散의 위협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 指針으로는 「fine核物質, 設備 및 技術의 移転을 계속 금지함과 동시에 중요한 核物質의 신규공급약속의 전제조건으로 非核國의 모든 原子力活動에 대해 IAEA보장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므로서 국제보장조치체제를 따르지 않는한 核物質供給에 응하지 않을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原子力 平加利用 推進에 대해서는 「美國의 많은 우호국, 동맹국들은 原子力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러国家는 근래 미국이 이런 国家들의 必要性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原子力 平和利用에서도 엄한 제한을 가했던 카터 전 정권을 비판하고 「(이들 여러나라와는) 오히려 충분한 보장조치하에서 原子力 平和利用協力의 예전 가능, 또한 신뢰할만한 동반자로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核不擴散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고 하였으며 平和利用推進에 적극적인 자세가 나아가서는 核不擴散을 效果的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核燃料싸이클 확립에 必要한 再處理, FBR開發에 대해서는 「진보된 原子力計劃을 갖고 있으며 또한 核擴散의 위협이 없는 여러나라에 대해서는 금지, 억제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民間 再處理, FBR開發에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을 환영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절한 보장조치하에서의 原子力 平和利用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는 동반자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부나 원자력규제위원회에 原子力協力에 기반을 둔 수출승인 신청등을 신속히 處理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政府, 原子力關聯法案 議會에

提出. 1990年 原子力發電比率 43%로



스웨덴政府는 石油依存度 減少와 原子力의 安全性 強化를 위한 法案을 議會에 提出하였다. 이에 따르면 스웨덴의 에너지공급에서 석유의존도를 現在의 70%에서 1990년에는 45%로 減少시키며, 原子力發電에 대해서는 그 發電比率을 現在의 27%에서 19

90년에는 43%로 증대시킬 計劃이다.

수도 스톡홀름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후오스말크原子力發電所의 热水를 利用한 首都 煙房計劃은 더욱 상세한 조사를 계속한다. 原子力發電의 安全性 強化에 대해서는 각 發電所마다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地

域安全委員會를 설치, 緊急시 防災警報시스템의 배치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政府가 議會에 提出한 에너지관련 법안에는 석유의존의 감소에 따른 에너지의 절약, 원자력의 기여 증대, 水力의 소규모 증가, 在來의 石炭, 泥炭, 木材등의 이용확대가 고려하고 있다.

작년 3月 23日 국민투표에서 인정된 稼動中, 建設中인 12基의 原子力發電所는 1990年까지 570억kwh를 發電하며 全電力供給의 43%를 충당한다. (80年 실적은 254억kwh, 27%)

80年末 現在 8基의 原子力發電所가 稼動中이고 4基(후오스말크 2, 3号, 링할스 4号, 오스카아샴 3号)가 建設中인데 모두 81~86年사이에 稼動될 예정이다.

또한 1990年的 水力 發電量은 650억kwh (全 發電量의 49%), 風力과 太陽發電에 대해서는 각각 10억kwh, 10~30억kwh로 추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現在, 전 에너지소비(약 4천억kwh)의 약 40%를 煙房에 使用하고 있으므로, 煙房用 石油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그 세금을 代替燃料使用獎勵에 用于計劃이다.

또 스웨덴政府는 지방당국에 대해 인구밀집지역에서의 地域煙房利用擴大를 지원하도록 권고하며, 煙房에 대한 電力의 합리적 이용에 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후오스말크原子力發電所 3号機(110만KW, 85年 運開 예정)의 熱水를 파이프 라인으로 100km유도하여 스톡홀름을 난방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政府는 아직도 “中立”的 태도를 표명하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때까지 더욱 상세한 조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스웨덴政府는 82年 7月까지 現在의 정부

산하 에너지기관을 「국가에너지청」 하나로 통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편 原子力發電會社에 대해서는 使用한 燃料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취급(최종처분포함)의 책임을 맡는 사업체 설립을 제안했는데 이는 SKBF(스웨덴 핵연료 공급회사)의 개편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작년 5月 시작된 使用한 燃料의 일시저장시설(CLAB)의 建設은 現在 예정대로進行中이며, 금년 1月부터 地表 建物의 建設을 시작하였다. 이 시설의 총 저장능력은 우라늄 3천톤으로서 建設費는 10억 크로너, 소유자는 SKBF이다. CLAB는 오스카아샴原子力發電所 부근에 위치하며 85年에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핀란드의 原子力發電會社 TVO와 SKBF 사이에 핀란드의 使用한 燃料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섭이 進行되고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따라서 스웨덴政府는 에너지法案 가운데 原子力發電所 사이트마다 地域安全委員會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 지역안전위원회는 公衆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主目的이며 정당, 지방당국, 발전소 대표들로서 이루어진다.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을 높이기 위해 格納容器에 여과 대기 방출장치가 설치된다. 그 제 1호는 바아세벡크原子力發電所로서 늦어도 85년까지 설치될 것이다.

原子力發電所로부터 반경 12~15km 안은 “긴급시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구역내에서는 原子力事故時를 대비한 상세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특별경보시스템의 배치와 지역주민에게 Iodine劑가 미리 배급될 것이다.